

KIEP

지역경제 포커스

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.kiep.go.kr 137-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09년 5월 18일

ISSN 1976-0507 Vol. 3 No. 16

최근 인도의 경기 동향과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

송 영 철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(ycsong@kiep.go.kr, Tel: 3460-1039)

■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인도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으나 경기부양책 실시 이후 일부 경기지표상 회복신호가 나타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.

- 지난 2월 철강, 시멘트 등 일부 인프라 부문의 산업생산이 전월(1월) 대비 소폭 상승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, 확실한 경기반등 신호로 보기는 무리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며 인도정부는 2분기 이후 본격적인 부양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.

■ 인도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인하를 실시하였으며, 총 3차례에 걸쳐 재정정책 및 감세정책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함.

- 1, 2차 경기부양책은 △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△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△ 해외상업차입(ECB: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) 허용 △ 은행권 및 비은행권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, 3차 경기부양책은 소비세 및 서비스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.

■ 지난 3차례의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적자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, 이는 향후 인도의 중장기적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음.

- 2008~2009 회계연도 인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전체 GDP의 약 3.2%에 해당하는 약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평가됨.

■ 여전히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재정 상황을 고려한 효과적인 추가부양책이 향후 인도 경기회복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.

대외경제정책연구원

1. 최근 인도의 경기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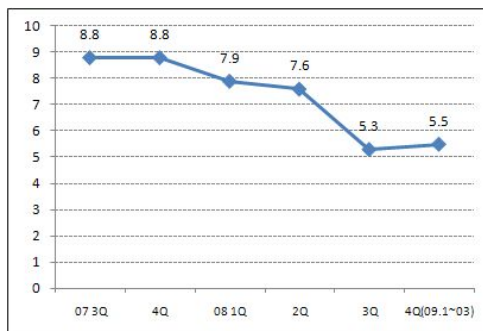
가. 성장률 부진 지속

■ 인도는 2009년 1~3월 기간 5.5%(전망치)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여, 2008~2009 회계연도의 당초 성장률 목표 7.1%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짐.

- IMF 역시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여 인도의 2008~2009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6.25%로 전망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5.25%로 경제성장률이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.

표 1. 최근 인도성장률 추이

	08 1Q	2Q	3Q	4Q
성장률(%)	7.9	7.6	5.3	5.5*
1차산업	3.0	2.7	-2.2	-
2차산업	6.9	6.1	2.4	-
제조업	5.6	5.0	-0.2	-
3차산업	10.0	9.6	9.9	-



주: *전망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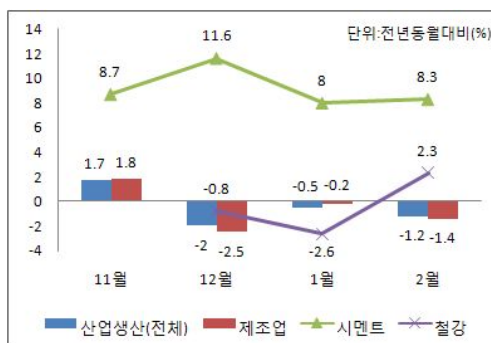
자료: 인도중앙은행(RBI); 인도통계청(CSO).

■ 일부 인프라 부문에서 회복신호가 감지되었으나, 다른 산업부문의 생산부진이 이어지며 2008년 4월~2009년 2월 기간 인도의 전체 산업생산 성장률은 전년동기 8.8%보다 6%포인트 하락한 2.8%에 그침.

- 철강 및 시멘트 부문의 2월 산업생산은 각각 2.3%, 8.3%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제조업 부문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생산을 하락시킴.

표 2. 최근 인도 산업생산 추이

	산업생산	증가율	제조업	증가율
08.7	273.8	7.4	294.7	8.0
8	264.0	1.4	283.1	1.4
9	274.7	5.5	296.6	5.6
10	274.7	-0.3	277.1	-1.1
11	265.5	1.7	283.8	1.8
12	279.1	-2.0	298.6	-2.5
09.1	280.4	-0.5	299.6	-0.2
02	272.8	-1.2*	292.7	-1.4*



주: *전망치.

자료: 인도중앙은행(RBI); 인도통계청(CSO) 보도자료 정리.

- 인프라 건설사업의 주요 내용인 도로 및 주택건설의 활성화가 시멘트 및 철강 수요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.

■ 하지만 인도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여 성장률 둔화세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함.

- 실제 2009년 1분기(인도 기준 2008년 4분기)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5.5%를 기록, 전분기(5.3%) 대비 소폭 증가하여 성장률 둔화가 완화된 것으로 해석됨.
- 인도정부는 인프라 및 제조업 부문의 생산회복으로 3월 산업생산 성장률이 (+)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함.

■ 일각에서는 성장률 소폭 상승이 막대한 재정지출 영향에 의한 일시적 회복이라고 평가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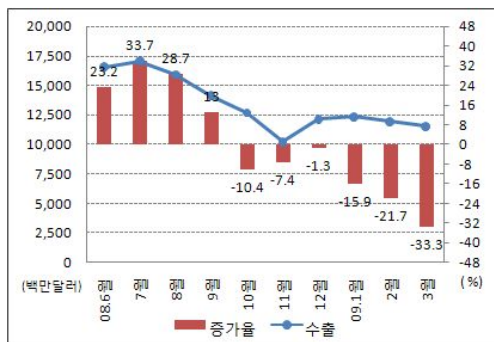
나. 수출 하락세 지속

■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업체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인도의 대외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21.7% 감소했으며, 3월 역시 33% 감소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.

- 이에 2008/09년도의 수출도 당초 목표액인 1,750억 달러보다 낮은 약 1,680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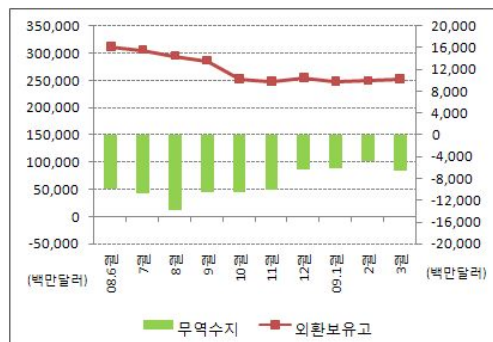
-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외환보유고도 3월 말까지 2,5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함.

그림 1. 최근 인도 수출 변화 추이



자료: 인도중앙은행(RBI); Global Insight.

그림 2. 무역수지 및 외환보유액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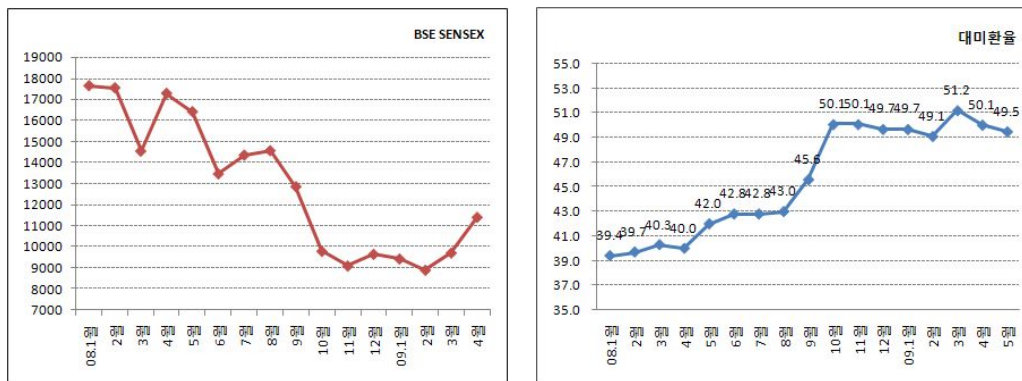


■ 인도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유럽의 소비침체 지속으로 인해 수출 지원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미국과 유럽의 소비심리 개선 여부가 수출 회복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.

다. 금융시장 안정

- 금융위기 이후 인도경제의 상대적 선방 및 외국인 투자심리 회복으로 인도증시 및 환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.
- 3월 초 8,000선까지 무너졌던 인도증시가 올 4월 초 약 30% 가까이 상승하며 10,000선을 회복하는 등 인도증시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.
- 대미환율은 3월 초 최고 51루피에서 점차 하락하여 5월 현재 49루피*대의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증시회복에 따른 효과로 해석됨.

그림 3. 최근 인도증시 및 환율 변화 추이



주: *5월 8일까지 계산된 환율임.
자료: 인도중앙은행(RBI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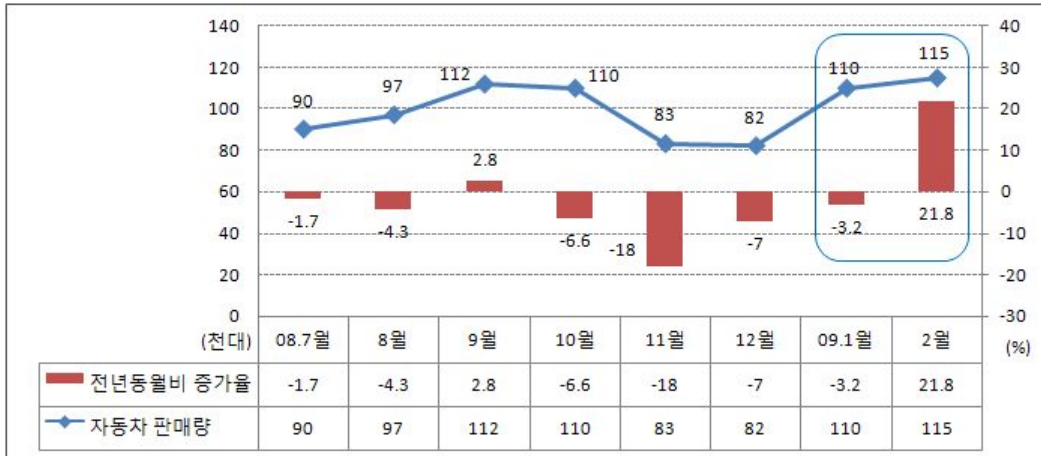
- 상대적으로 견실한 인도의 경제성장 전망 및 인도정부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.
- IMF는 2009년 인도의 성장률이 5%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, 2010년 이후 6%대로 회복하여 중국과 비견될 만한 성장률을 기록할 유일한 국가로 평가됨.

라. 자동차 판매량 증가

-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했던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여 올해 1, 2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급속히 증가함.
- 지난 1월과 2월 인도의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각각 11만 212대, 11만 5,386대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판매량이 급증함.
- 2월 자동차 판매량은¹⁾ 전년동월대비 무려 21%나 증가하며 지난 4개월 연속 지속되던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벗어남.

- 1월과 2월 자동차 판매 회복으로 인도 국내 자동차 판매량(2007년 4월~2008년 2월)은 약 110만 대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약 0.28%포인트 증가함.

그림 4. 최근 인도 자동차 판매량 추이



자료: SIAM, 보도자료.

- 지난해 12월과 2월, 2차례의 소비세 인하 및 자동차 대출금리 하락으로 자동차 구매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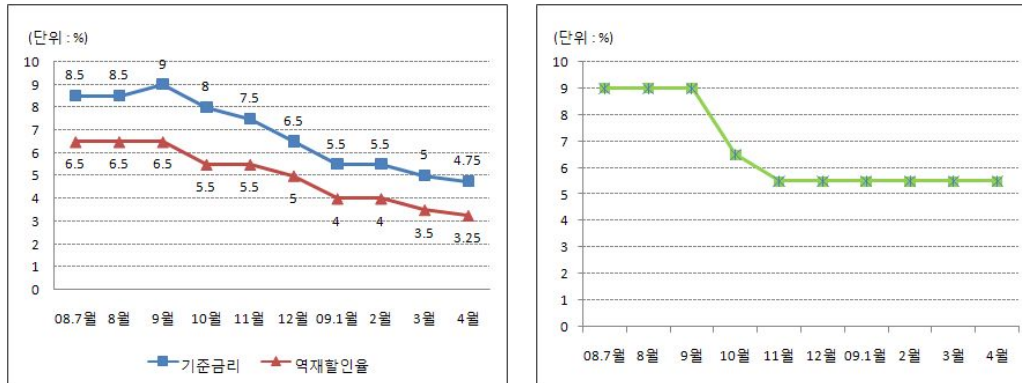
2.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인도의 대응

가. 통화정책

- 인도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적인 금리인하 및 은행지급준비율 완화를 실시하여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를 도모함.
- 인도의 기준금리(repo rate)는 지난해 9월 이후 총 6차례 인하되어 9.0%에서 4.75%까지 낮아졌으며, 역재할인율(reverse repo rate)은 같은 기간 총 5차례 인하되었음.
- 인도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둔화를 고려하여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3차례에 걸쳐 지급준비율을 9%에서 6.5%로 인하하였음.

1) 2009년 2월 21%의 자동차 판매율 성장은 지난해 동월 자동차 판매량이 유난히 저조했던 영향이 크며, 이는 3월 자동차세 인하에 대한 기대로 자동차 구입을 미룬 것으로 해석됨.

그림 5.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추이



자료: 인도중앙은행(RBI).

나. 경기부양책

1) 1차 경기부양책

- 인도정부는 지난해 12월 7일 예산지출 외에 41억 달러(약 6조 원) 규모의 재정을 추가 지출하는 1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음.
- 주요 내용은 △ 인프라투자 확대 △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△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△ 주택담보 대출 완화 △ 부가세율 인하 등임.

표 3. 1차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

주요 조치	주요 내용
인프라 건설 투자지원	- 인도기반시설금융회사(IIFCL)의 비과세채권 발행을 통한 인프라 건설사업 금융지원(20억 달러)
수출기업 금융 및 세제지원	- 노동집약 수출업체들에 대한 2% 대출이자 보조지원 - TED(Terminal Excise Duty) 환급 및 외국대리점 수수료에 대한 서비스세 환불 - ECCGC(인도수출신용보증공사)의 7,000만 달러 조성을 통한 정부 보증 확대
중소기업 금융지원	- 중소기업에 대한 약 14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- 신용보증한도 확대(10억 달러 → 20억 달러)
소비세(Excise duty) 인하 ²⁾	- 석유화학제품을 제외한 전 제품에 대한 4%포인트 인하
기타	- 예산범위 안에서 정부차량 교체 허용 - 발전용 나프타 수입관세 철폐 - 분철광석에 대한 수출관세 철폐

자료: 각종 보도자료 정리.

2) 최초 인하기간은 3월까지였으나 3차 경기부양책을 통해 2009년 9월까지 연장됨.

■ 하지만 40억 달러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은 인도 GDP의 0.4%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부양책 규모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기 활성화에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임.³⁾

- 오히려 심화되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여파가 본격적으로 인도경제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추가적인 부양책이 요구되었음.

2) 2차 경기부양책

■ 인도정부는 지난 1월 62억 달러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음.

- 주요 내용은 △ 해외상업차입(ECB: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) 허용 △ 은행권 및 비은행권에 대한 유동성 지원 △ 인프라사업 금융지원 확대 등 주로 인프라 건설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정책에 초점이 맞춰졌음.

표 4. 2차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

주요 조치	주요 내용
해외상업차입 확대	- 비은행금융기관의 해외차입 허용(인프라 건설 사업자 금융지원 목적) - '종합타운십개발'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상업차입 허용 - 해외차입금리 상한선 폐지 - 해외투자기관들의 인도회사채 투자한도 완화(60억 달러 → 150억 달러)
은행권 및 비은행권 자본 확충지원	- 국영은행 및 비은행권의 자본 확충을 위한 유동성 지원
인프라 건설 투자지원	- 인도기반시설 금융회사(IIFCL)의 추가 비과세채권 발행 허용

자료: 각종 보도자료 정리.

3) 추가조치 및 3차 경기부양책

■ 2차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인도정부는 유류비 인하 및 FDI 규제 완화, 쌀 수출관세 폐지 등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함.

-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국제유가 하락을 고려하여 휘발유 및 경유가격을 각각 5루피, 2루피씩 인하한 40.62루피, 30.86루피로 조정하였으며, LPG 가격은 실린더당 25루피 낮아진 279.7루피로 인하함(텔리 기준).

3) IMF와 모건스탠리 보고서는 대부분 국가들의 경기부양책 규모가 1.5%를 넘지 않음을 지적하며 재정적 여력이 되는 국가들의 부양책 규모 확대를 강조한 바 있음(2009년 1월까지의 경기부양책 규모 고려).

- 인도정부는 합작회사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완화방안을 승인하였으며, 일부 산업에 대한 지분제한 완화 및 승인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를 실시함.
- 뉴스 부문의 출판업(신문, 잡지)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28%에서 100%로 확대하였으며, 항공 부문에 대해서는 25%까지 확대함.
- 화학, 소매업, 방산 부문에 대해 외국인투자 승인절차 간소화 및 지분한도 완화 허용을 검토 중이며, 호텔 및 복합상영관을 포함하는 관광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철폐할 계획임.
- 기존 톤당 8,000루피의 쌀 수출관세를 철폐하고 최저수출가격을 1,200달러에서 1,100달러로 인하하여 쌀 수출업자들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.

표 5. 추가조치 주요 내용

주요 조치	주요 내용
유류세 인하	- 휘발유 및 경유가격 각각 5루피, 2루피 인하 - LPG 실린더당 25루피 인하
FDI 규제 완화	- 인도-외국 합작회사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완화 - 출판, 항공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 - 화학, 소매업, 방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및 지분한도 완화 - 호텔 및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⁴⁾
수출관세 철폐	- 톤당 8,000루피의 쌀 수출관세 폐지 및 최저수출가격 인하 (1,200달러 → 1,100달러)

자료: 각종 보도자료 정리.

■ 특히 소비세 및 서비스세 인하 등 다양한 조세인하를 골자로 하는 3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여 소비자들의 소비지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, 제조업체들을 지원하여 수요회복효과 및 경기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.

- 소비세 및 서비스세는 각각 2%포인트씩 인하되어 제조세율은 10%에서 8%로, 서비스세율은 12%에서 10%로 조정됨.

4) 외국인직접투자 규정에 따르면, 프로젝트 개발 구역이 최소 25에이커(acre) 이상, 독립자회사의 경우 1,000만 달러 이상, 인도파트너를 둔 합작회사의 경우 500만 달러 이상의 최소 자본이 요구되며, 외국인 투자자들은 프로젝트 완료 후 3년까지 투자를 중단할 수 없음. 단, 부동산 규제 철폐의 대상에 속하기 위해서는 동 프로젝트들이 전체 단지 면적의 최소 50% 이상을 호텔 및 음식, 문화 등 관광 촉진 시설로 사용하여야 함.

표 6. 산업분야별 제조세 및 서비스세 인하율(3차 경기부양책 내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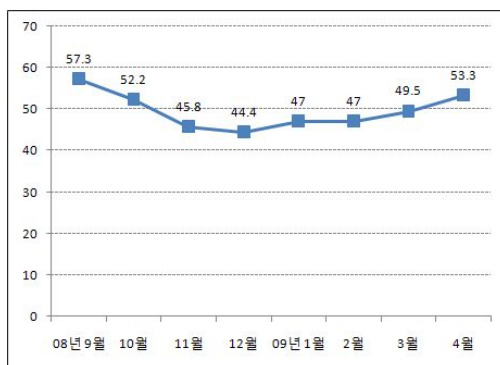
산업		기존세율(%)	조정세율(%)
소 비 세	자동차(소형차) ¹⁾	8	8
	자동차(트럭)	10	8
	내구소비자재	10	8
	철강	10	8
	시멘트	10	8
서 비 스 세	통신	12	10
	관광	12	10
	호텔(숙박)	12	10
	신용카드	12	10
	항공	12	10

주: 1) 소형차에 대한 소비세는 작년에 인하되어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.
자료: 비즈니스라인.

4. 향후 전망

- 인도정부는 현재 경기가 반등은 아니지만 일부 경기지표상의 회복신호와 함께 경기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, 9월 이후 경기부양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.
- 제조업 경기판단지수인 PMI가 5개월 만에 50선을 넘어서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.

그림 6. 최근 제조업구매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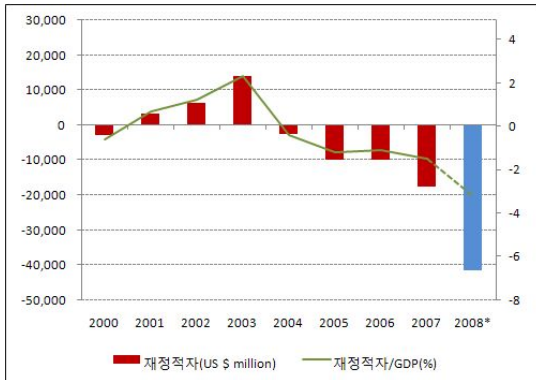
	PMI(구매자관리지수)
2008년 9월	57.3
10월	52.2
11월	45.8
12월	44.4
2009년 1월	47
2월	47
3월	49.5
4월	53.3

자료 : The Economic Times.

- 하지만 지난 3차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무리한 재정지출로 재정적자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, 이는 향후 인도의 중장기적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됨.

- 2008~2009 회계연도 인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전체 GDP의 약 3.2%에 해당하는 약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며, 국제신용평가사인 S&P는 인도의 신용등급 전망⁵⁾을 '안정적' 에서 '부정적' 으로 조정한 바 있음.

그림 7. 인도 재정적자 규모



주: *추정치(2008년 4월~2009년 3월까지).

자료: 인도중앙은행(RBI) 보도자료 정리.

	재정적자 (백만 US달러)	CAD/GDP(%)
2000	-2,666	-0.6
2001	3,400	0.7
2002	6,345	1.2
2003	14,083	2.3
2004	-2,470	-0.4
2005	-9,902	-1.2
2006	-9,766	-1.1
2007	-17,403	-1.5
2008	-41,500*	-3.2*

- 총선이 마무리되는 5월 이후 신정부 출범과 함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,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재정정책보다는 추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이 경기부양책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음.
- 5월 현재 인도의 기준금리는 4%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.
- 지난 3월 무디스도 인도의 제로인플레이와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통한 소비와 투자심리 회복이 향후 인도 경제회복의 열쇠가 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음.
- 결과적으로 인도경제가 여타 신흥국들보다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지만, 여전히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재정 상황을 고려한 효과적인 인 추가부양책이 향후 인도 경제회복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.

5) 인도의 재정적자 악화로 인해 S&P는 2009년 2월 24일 인도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현재 'BBB-'인 인도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인도의 신용도는 '투자부적격(정크)'이 됨.